

《레닌기치》

5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역사.

10

и слезами и кровью

написана наша история.

15

20

《레닌기치》 /

	중	국	의	정	품	운	동	을	본
	바	아	기	일	성	이	는	1	9
	나	년	에	북	한	에	자	백	운
	을	벌	여	농	고	무	고	한	백
5	성	들	을	고	흥	속	에	허	늘
	다	음	대	일	수	천	명	식	숙
	칭	하	기	시	작	하	였	다	
	바	로	이	단	시	에	자	기	살
	던	조	국	을	버	리	고	소	련
10	은	로	떠	나	운	우	리	동	포
	은	은	고	흥	당	을	떠	나	고
	실	지	아	아	은	벼	도	소	련
	에	서	도	누	가	기	다	리	지
	아	아	지	만	달	리	는	할	수
	는	환	경	에	봉	취	하	여	한
15	스	에	과	는	물	을	농	리	면
	들	도	어	는	조	국	당	을	도
	리	켜	보	고	도	도	리	켜	보
	면	서	아	공	강	과	두	만	강
20	진	너	왔	다					

《레닌기치》 2

	그	러	면	이	들	은	왜	이
	런	게	피	난	물	을	술	리
	면	서	조	국	당	을	떠	나
	야	만	되	었				
	던	가	?					
5	그	들	은	자	기	변	호	들
	에	게	서	그	항	당	을	떠
	나	두	만	강	홍	은	인	공
	가	을	건	너	중	국	당	만
	주	권	질	의	원	동	에	가
	지	뒤	서	반	변	어	그	살
10	게	되	미	야	기	를	중	중
	들	었	다					
	그	때	에	그	들	은	1	9
	1			0	년	에	조	선
	이	의	이	화	병	된	후	
	로	레	의	취	취	와	한	안
	을	견	디	리	부	화	여	도
15	은	이	를	제	를	반	대	화
	면	기	배	았	긴	조	국	을
	도	를	참	은	러	고	질	회
	화	의	병	대	에	가	람	하
	여	향	전	을	환	취	로	그
	항	당	서	는	던	는	살	유
	가	의	가	의	가	의	가	의

없 어 서 그 곳 을 떠 나 트 던 것

이 다

러 시 아 원 동 변 강 에 도

착 한 우 리 부 모 들 은 반 호

5 곁 막 이 나 흥 나 무 켜 늘 집

에 서 살 면 서 도 학 교 는

열 고 아이 들 에 게 글 을 배 워 주 기

시 작 하 면 서 도 다 음 과 같 은

노 래 도 배 워 주 겠 하 였 다

10 이 천 만 에 동 포 야 어 려 나 기 라

어 려 나 서 흥 을 들 고 칼 을 갈 아 타

랑 없 던 네 차 업 와 네 조 국 을

원 복 이 손 에 서 다시 찾 도 록

또 는 우 리 들 은 그 들 의

15 힘 거 문 일 허 에 서 도 정 안 막

한 휴 식 시 간 은 이 용 하여

눈 물 은 흥 리 면 서 뿜 르 던

다 음 과 같 은 노 래 로 들

었 다. 남 쪽 나 라 떠 나 트 던 곳

20 예 로 부 히 살 려 고 향

《레닌기차》 4

	파	눈	물	로	이	별	하	고		
	떠	나	야	만	되	었	던	가.		
	어	린	아	기	들	에	있	고		
	병	든	어	비	이	꽃	영	서		
					남	부	어	대		
					행	하	는	곳		
					그	어	대	어	대	였
5										
	그	때	에		우	리		부	부	들
								들		
	외	래		최	약	자		일	레	의
								바		를
	호	아	래	에	서	는		산	길	이
								어		뻐
	서	서		그	런	게		하	였	지
								만		,
10	그	런	데		우	리	들	은	그	네
								들		
	의	제		오	세	대	로	서		왜
	또	다	시		그	네	들	의		최
										참
	길	을		반	복	하	였	던	가?	
	그	것	은		자	기		조	국	의
15	최	고		책	임	자		소	위	인
										탄
	의			"어	바	이	로"	가	칭	한
										길
	일	성	의		지	시	에		따	라
										"종
	파	분	자"		"어	색	분	자"		"반
										당
	자"			"반	복	행	분	자"		숙
										침
										은
20	동	이		게	달	별	을	:	최	음
										에
										는

《레닌기차》 5

	남	한	에	서	들	어	온	간	부
	다	음	중	국	노	련	말	이	막
	으	르	리	방	간	부	평	을	숙
	한	다	음	자	기	별	차	산	간
5	도	절	반	어	상	숙	청	하	였
	어	런	게	간	부	들	을	숙	청
	하	는	노	무	사	상	검	초	당
	회	의	에	서	는	어	는	결	한
	조	작	화	여	적	책	에	서	해
10	철	적	식	원	후	2	-	3	일
	지	나	면	권	장	에	서	축	출
	고	살	던	집	에	서	,	비	내
	여	름	이	나	는	내	리	는	거
	이	나	별	근	하	고	모	든	가
15	정	등	블	은	남	겨	문	채	추
	하	군	하	였	다	,	이	과	정
	양	은	세	대	주	들	은	별	취
	어	비	검	거	추	목	되	었	다
	이	런	게	"	연	자	"	하	고
20	김	일	성	막	당	들	은	화	물

《리얼리티》6

시어

	어	후	방	당	하	는	가	족	들	을
	평	양	시	외	에	내	여	보	내	면
	너	알	하	기	를	-	지	방	에	나
	리	가	일	년	경	로	동	고	암	을
5	반	은	연	당	은	다	시	당	신	
	들	을	간	부	로	등	용	할	것	이
	나	다	-	하	였	다	그	러	나	쫓
	직	당	하	는	사	람	들	은	그	면
	러	들	러	난	사	람	들	의		행
10	방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
	그	것	은	아	주	교	통	이		불
	편	한	중	백	한	눈	에			는
	협	동	조	함	어	나	백	투	산	별
	독	광	어	나	그	럼	위	어	나	면
15	한	광	이	나	철	광	산	에	내	면
	보	낸	반	당	,	반	인	면	중	파
	자	들	은	선	환	로	동	당	부	들
	주	선	하	어	협	거	을	중	동	에
	대	라	아	주	고	,	희	롱	과	야
20	에		억	을	하	게	눈	을	감	았
										다

《레닌기치》 7

	는	것	을	,	레	하	면	부	활	민	주
	공	화	국	에	서	전	인	민	적		사
	량	과		준	경	을	받	으	시	런	
	김	두	봉		상	인	위	원	회		위
5	장	신	라		박	의	완		부	수	상
	은		중	양	정	부	에	서		이	방
	막	은	편	서		일	하	였	다	는	죄
	로		형	동	조	합	에		경	배	보
	다	은		레	일	큰		적	의	게	에
10	등	두	어	를		지	고	다	나	다	가
	길	바	다	에	서	로	동	당		열	성
	자	들	의		야	질	을		당	하	다
	변	을	서	화	였	다		그	런	가	화
	이	들	의		가	정	도		중	적	어
15	어	이		일	어	지	고		말	았	다
	그	변	만		아	나	다	,	기	내	건
	안	철	,	김	철	,	리	중	인	,	전
	기	철	부	,	장	무	화	,	장	주	익
	동	리	들	은		본	인	들	과		함
20	가	적	들	도		행	방	분	명	이	되

《레닌기치》 8

	여	섯	다										
		이	러	한		형	편	에	서		소	련	
	중	요	로		발	길	을		돌	린		우	
	리	들	은		전	정		산	길	을		찾	
5	아	서	여	섯	다								
		1	9	9	2	년	에		고	성	무	선	
	생	이		발	동	한		자	료	에		리	
	하	면		1	9	4	0	년	대	에		소	련
	으	로		벌	에		조	선	에		확	전	
10	된		조	선	인		중	수	사	작	은		
	4	3	8	명	으	로		발	동	되	었	으	
	면	,	그	중	에	서		우	크	베	크	한	
	에	서		러	나	간		사	람	들	은		
	(우	크	베	크	공	산	당	중	앙	분	과	서)
												261	
15	명	으	로		되	어	여	다		그	러	나	
	우	리		유	가	족		총	원	회	가		
	장	악	하	고		있	는		자	료	에		
	의	하	면		그	중	에	서		다	서		
	우	크	베	크		공	화	국	에		포	아	
20	문	사	람	들	은	(부	분	적	으	로		

《레닌기치》 9

	세	대	주	를	인	상	고	가	족	만
	돌	아	온	것	을	합	하	여	1	총 6
	2	호	여	,	현	재	생	존	하	고
	있	는	세	대	주	는	1	호	명	이다
5	우	크	배	크	한	에	서	좌	견	된
	간	부	들	중	에	서	6.25			동
	족	상	쟁	시	권	사	한	분	들	은
	4	명	인	바	안	동	우	,	박	훈
	박	리	오	너	드	장	난	익	이	여
10	김	일	성	경	혜	에	한	압	-	강
	금	당	하	여	돌	아	오	리	물	한
	사	람	은	김	철	성	,	김	동	철
	김	원	길	,	박	사	현	,	박	해
	박	일	타	리	문	,	전	혁	준	,
15	최	원	,	정	일	,	김	해	경	십
	12	이	12	,	기	하	는	유	형	지
	에	가	서	야	자	기	들	이	누	7
	은	것	을		취	행	하	12	명	서
	되	고		안	안	다				
20										

2

《레닌기치》 10

	그	러	면	현	재	평	양	시	에
	서	살	근	어	는	말	어	막	
	시	간	까지	북	형	당	하	지	아
	한	소	련	출	신	간	부	는	년
5	이	나		되	는	가	?	그	것
	기	보	을	기	보	을	인	의	년
	어	다	,	그	러	면	나	한	이
	중	국	에	서	온	간	부	들	은
	그	것	은	역	시	말	히	한	가
10	지	냈	다	그	렇	다	김	일	성
	김	정	일	과	한	개	이	전	자
	들	의	역	사	를	아	는	간	부
	들	은	몽	땅	개	끼	이	총	산
	하	고	군	주	국	세	습	독	재
15	를	꾸	리	려	하	였	던	것	이
	그	러	나	이	것	은	금	일	
	현	실	에	어	어	서	안	될	것
	이	전	에	북	한	에	서	기	일
	과	간	어	나	라	를	꾸	리	다
20	가	한	어	당	하	고	추	방	되

《레인 키치》 11

이 글 에 은 사 람 들 중 5 명

은 5 번 권 에 다 시 김 일 성

에 게 전 항 하 여 러 리 글

수 기 몇 지 만 그 들 도 다

5 우리 와 한 가 지 로 남 아 있
다가 시간이 흐 르 는 데 따라 사 망 하 시 고

는 ~~한~~ 명 으 로 켜 시 간 의

~~인제~~는 한 명 이 남 아 있 다.

~~들~~ 중 에 따 라 중 어 가 고 어

~~는~~ 것 은 사 실 이 다. 그 러 나

우 리 들 에 게 는 우 리 가 조

10 선 에 서 물 때 에 대 리 고 은

우 리 의 2 세 대 와 또 여 기

와 서 가 라 고 있 는 3 세

대 가 성 광 하 ~~고~~ 있 다

그 들 에 게 물 어 보 라 !

15 그 들 이 복 한 의 군 주 세 습

제 도 를 지 지 하 는 가 ?

물 론 《 아 니라 고 대 답 할

것 이 다

나 는 어 예 대 하 여 더

20 쉼 게 실 명 하 려 하 지 않 을 다

2

《리진기치》 12

	사	기	은	차	아	기	은	은
	등	지	계	되	우	리	전	체
	포	들	은	차	추	권	은	환
	원까지 농담하여도 인제는 다세상려나							
	면까지 러 은 환 아 그 러 나							
5	은	비	어	지	적	하	여	애
	세	대	주	은	기	은	서	아
	영	화	어	떨	겨	두	고	도
	도	어	린	아	이	들	의	목
	이	나	사	리	려	고	려	나
10	그	부	인	들	의	길	은	은
	환	숨	에	눈	물	피	인	길
	였	다	.	이	들	은	국	경
	공	강	출	교	를	진	어	을
	차	상	은	은	정	은	고	향
15	제	속	도	리	귀	보	면	서
	마	음	속	에	길	이	간	적
	었	는	세	상	에	서	가	강
	제	한	그	사	란	의	그	림
	보려듯듯이							
	라	도	애	를	써	가	면	서
20	거	은	눈	물	을	쓸	았	다

단 1명
라이 나아이라

《레닌기치》 13

	사	리	지	어	근	연	자	환
	친	축	어	기	다	리	지	아
	어	들	의	생	활	은	소	련
	도	라	와	서	도	밖	아	다
5	문	문	물	코	비	개	어	을
	시	군	하	였	다			
	그	리	나	세	월	은	승	리
	경	은	그	항	과	그	림	은
	이	들	을	주	근	문	지	벌
10	년	두	지	나	서	원	제	는
	서	40	년	이	가	까	아	오
	있	다	안	가	지	고	생	과
	관	을	이	주	지	문	화	만
	지	난	오	늘	에	는	그	이
15	아	이	들	이	성	장	화	여
	에	진	출	한	으	르	서	그
	문	리	적	중	재	여	는	근
	정	어	은	나	자	나	개	나
	하	에	서	려	나	리	어	는
20	거	리	,	그	항	점	,	아
								4
								그
								보

《레닌 기차》 14

	다	도	더	한	것	은	그	의	들	의
	가	슴	속	에	기	어	사	무	쳐	었
	는	그	남	편	의	시	경	,	사	
	랑	스	러	운	복	소	리	,	떠	뜨
5	던	그	손	길	과	각	해	는		
	언	제	든	지	그	어	터	너	들	과
	동	행	할	것	이	다				
	일	례	로	,	기	일	섬	의	정	복
	호	위	처	장	으	로	지	내	시	던
10	기	덕	환	씨	의	부	연	밖	에	가
	재	리	나	는	당	년	85	세	로	취
	남	편	이	체	포	되	며	간	지	37
	년	이	지	나	스	나	이	기	간	에
	라	일	을	하	루	갈	어	,	라	기
15	밤	상	에	는	그	남	편	의	수	
	저	를	들	^가 쳐	러	놓	고	편	심	을
	라	일	저	녁	자	리	를	편	때	에
	그	의	의	자	리	도	같	이	후	를
	으	러	도	아	쉽	이	면	거	우	군
20	할	나								

《레닌기치》 15

	그	러	련	예	가	재	리	나	할
	머	너	는	어	느	때	가	지	나
	리	순	남	편	에	대	한	다	변
	어	느	공	대	를	계	속	할	것
	아	라	도	자기가	생	존	하	시	는
5				한	도				
	북	한	정	북	로	북	허	공	식
	적	부	고	를	받	는	날	가	지
	라	고	집	각	활	우	어	라	
	나	는	벌	써	10	년	전	불	어
10	나	의	권	우	들	도	그	들	의
	가	족	들	에	대	하	여	자	를
	권	우	기	시	작	하	였	은	너
	여	건	은	"레	닌	기	치"	"고	려
	및	"구	국	전	선"	지	에	받	를
15	하	였	다	1	9	94	년	말	에
	우	르	베	크	스	한	주	재	
	한	중	대	사	로	와	게	시	들
	서	건	이	대	사	는	우	리	의
	유	가	족	후	원	회	대	표	를
	적	대	석	상	에	서	-	여	러
20									분
									들
									의

	눈	물	로	어	켜	진	그	상	의
	역	사	는	우	리	의	후	대	를
	어	보	게	하	기	위	하	여	당
	신	너	각	자	들	의	희	생	기
5	공	함	하	여	책	으	로	출	판
	여	야	환	다	고	하	시	였	다
	그	렇	지	않	고	제	시	다	가
	신	들	이	인	약	에	이	세	상
	려	우	시	게	되	면	그	역	사
10	누	구	런	지	알	수	없	게	될
	이	나	-	라	고	하	신	말	씀
	우	리	대	들	을	에	게	새	롭
	희	망	과	용	기	를	깃	들	어
	었	다							
15		이	책	에	써	여	진	각	
	재	료	들	은	김	일	성	등	재
	의	감	옥	에	서	우	사	하	신
	들	, 황	한	의	각	농	광	들	라
	적	강	들	에	서	로	동	양	열
20	라	들	의	순	에	의	여	당	나

	다	가	기	진	막	진	행	여	길
	가	나	북	도	에	서	눈	을	감
	신	어	를	, 또	눈	은	영	각	각
	지	방	을	에	후	행	당	행	여
5	우	신	후	에	일	가	이	눈	을
	한	눈	을	를	남	의	행	의	눈
	과	떨	려	우	고	우	신	그	들
	에	대	한	소	식	을	기	다	리
	다	가	발	세	하	신	그	어	들
10	피	눈	을	라	한	눈	의	응	결
	서	북	한	군	주	동	재	세	눈
	도	에	항	거	하	는	어	려	한
	증	언	들	이	다				
	드	하	는	수	어	어	자	기	
15	극	적	을	거	절	하	고	일	한
	민	주	양	명	가	로	서	소	련
	각	지	역	에	들	어	다	다	가
	우	크	백	한	하	슈	켄	트	시
	발	세	하	신	전	북	한	눈	영
20	정	권	대	사	리	삼	조	신	생

북한 조동당 전원회의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에게

이번 평리악;

조선 조동당 중앙위원회

5 위원은 김일성에게 ^{이번} 평리악

들은 (1956년 10월 11일 북)

이 책 내용의 철두철미

한 증거이며 북한이 가라

공산 체제에 대한 끊임

10 연로라 ~~다~~ 인정한다

우가주 후원회장 광복

15

20

생의 많은 말.

사람의 일생이란 생활 환경에 의하여 좌우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어니할 길이라느것을
이제와서야 알게되었다.

유년 학생 시절이나, 처음 인간생활의 환경에
접촉할시 나에게 생의 길이 없었는지 어찌는지 생각해
이 거리 만인의 움직임은 그 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대로 허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접촉하여 살아온 나의 길에
는 다 뜻한 인간적인 즐거움은 느낄 대도 없었고
또 예상 할 수 없었고 후회 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은 처할 대도 없었다.

사람이란 감정적 동물인 것 만쥬 대경우마다 그
환경에 대처하는 방책을 꾸려나 취하여야 하였다

만약에 그에 대응되는 적당한 대책을, 결심을 취
하지 못하고, 거리 소홀히, 경솔히 발걸음을 내
놓아가는 그 어후 오래동안 후회를 내버려둘게 느끼
게 되었는것을 이제 내날이 84세가 되는 오
늘에야 결론 짐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생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 반
듯이 귀인들이 신법이다. 수천 만 평인들이 움직
이고 있는 인생의 대에서 이 귀인들을 잘 알아
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말문을 열면

하여 잘 드루 명심하여 실원에 옮겨야 한다.
 이 귀인들 외에 다른 말인들은 전부다 동등한 존경하는
 동류들이다. 그러나 그 동류중에도 몇몇의 친구가 있는바 그
 들은 친척보다 더 가까운 한 향배의 구성체들이다.
 나의 생애에서 귀인이란 한정된 사람들은: 박영현
 선생, 최종학 선생, 남일, 김흥물, 최현, 최광, 리호원^{김재욱} 등
 선생들이다. 이 선생님들의 말뜻은 참 수정같이 끼니 굶 한
 진실적 말뜻이었다.

나의 책에는 선생, 동지들에 대한 80명의 격려, 회
 삼, 격려를 이루어 수록되었는바, 그 재료들은 전부다 그
 들의 부원, 자식들, 멀근-가까운 친척들이 각이한 조건에
 서 각이한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한것이며, 그중에서
 몇개만은 자신의 손으로 수록하여 두었던것은 나에게
 검증된, 전달하여 준것이다.

특히나: 남봉식 선생, 유성환 선생, 박행물 선생 강
 상호^{리창조} 선생들과 허익 선생 부인 윤엘리나, 안윤경
 선생 부인 송종산 사모님들이 그리하였다. 나는 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줄은다 나의 어려서부터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으
며. 나의 재간없는 집필에 대한 욕심을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조건들은 나의 책의 초대는
 되었으나, 이 책이 앞으로 해 빛을 볼수 있는 희
 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러가지 근심
 걱정중에 생각하기를: 최재욱 이 나의 원근가

4의 주소: 700115,
Usvekstan, Tashkent, 115
Chilansar: I-29-34.

telefon: 998712-53-59-72,

장하봉. tian hark-pong
(Satron Ivanovitchian)